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8. 12. 24(월) 총 5매(본문3)	
담당 부서	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	담당자	• 과장 정우진, 사무관 김성수, 주무관 하성무 • ☎ (044) 201-4921, 4927	
	동서남해안기획단 기획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문석준, 사무관 유승민 • ☎ (044) 201-4549	
	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기획처	담당자	• 단장 구범서, 차장 오홍택, 과장 김대근 • ☎ (055) 922-4281, 4288	
보도일시		2018년 12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'리스타트 플랫폼' 본격 착수 내년 하반기 개소 목표...청년 창업교육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박상우)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 “통영 리스타트 플랫폼” 내부 리모델링을 이번 달 26일에 착수하여 ‘19년 하반기 개소한다고 밝혔다.
- 통영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·고용위기 지역으로,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고자 “통영 리스타트 플랫폼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다.
- “통영 리스타트 플랫폼”은 폐조선소 부지(옛 신아sb)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과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·취업교육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·예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*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및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.

* 위탁 운영사: (주)인터파크씨어터 및 이화여대산학협력단

- 또한, 운영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, 청년창업자 및 사회적 기업 등에게 창업 시제품 판매, 관광 콘텐츠사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통영의 「도시재생 활성화계획」은 12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* 심의를 통해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이번 달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으며, 2023년까지 국비 250억 원, 지방비 471억 원, LH 투자 1,200억 원, 민간투자 2,800억 원 등 총사업비 약 5,42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.

* 도시재생특별위원회 :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,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, 산업, 문화·예술, 복지,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

- '17.12월 뉴딜 사업지 선정 이후, 폐조선소 부지를 금년 4월에 LH에서 매입하였고, 7월에 경남도-통영시-LH 간 통영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,

- 9월에 폐조선소 부지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 국제공모에서 포스코 A&C 컨소시엄의 '캠프 마레'가 선정되었고, 이를 반영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*을 수립하게 되었다.

* 뉴딜 사업면적(510,000㎡) = 폐조선소 부지(145,000㎡) + 주거지역(365,000㎡)

□ '캠프 마레'(마레는 라틴어로 '바다')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녹지의 그린네트워크와 바다의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하고, 기존 조선소 도크와 크레인을 보전·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.


-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음악당, 케이블카·루지, 동피랑 등과 함께 통영의 문화·예술·관광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공방을 모티브로 한 '12개 교육 프로그램*'을 폐조선소 부지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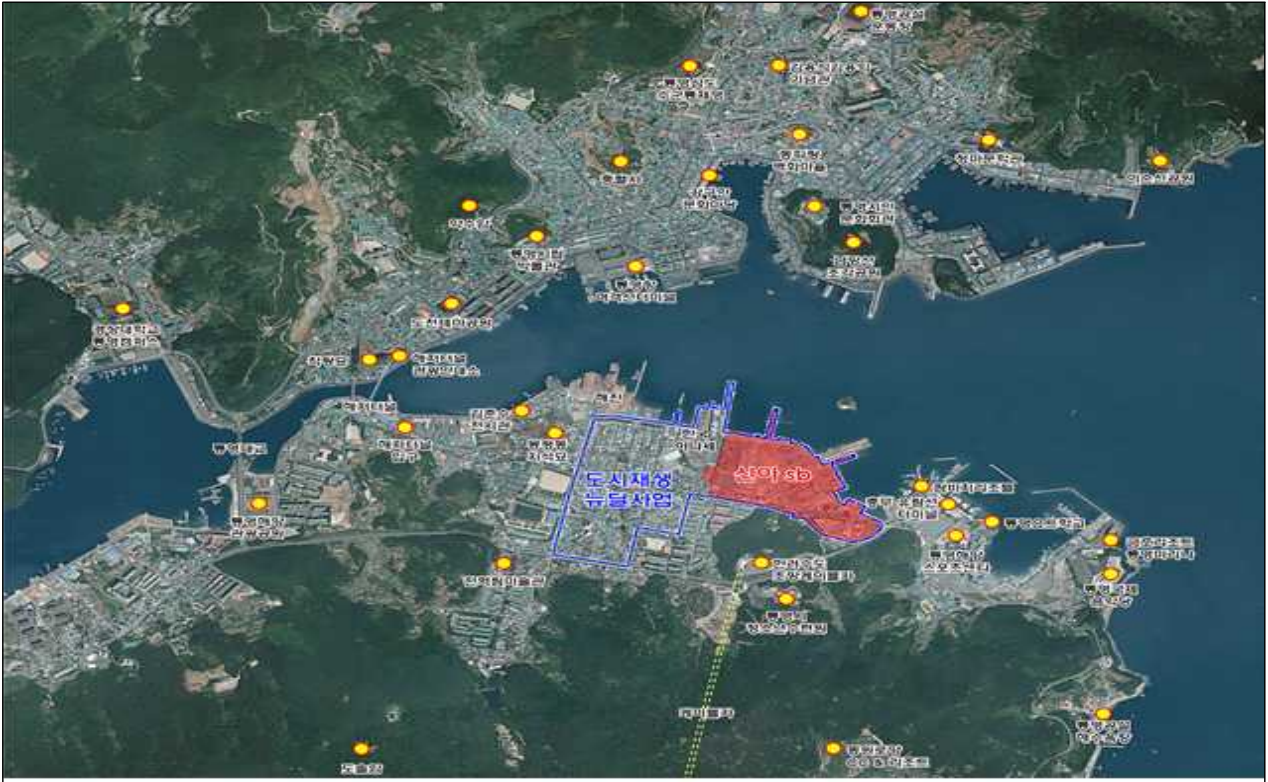
* (12 School) 배제작, 통영음악, 통영장인공방, 관광창업, 바다요리 등 통영전통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

- 이를 통해 통영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경제과장은 “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영에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·관광·해양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”이라면서,

- “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,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김성수 사무관(☎ 044-201-4921),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기획처 오홍택 차장(☎ 055-922-428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



☞ 뉴딜 사업지역은 파란색 경계표시임

